

민주당이 제시한 '우리동네 공약'

NEWS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시컴퓨팅센터 등 AI 산업 국가시범도시 조성

광주 5개 자치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선 거대핵심위원회가 광주지역 5개 구청이 건 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별 공약을 마련 했다.

19일 민주당 광주선대위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대표 공약과 세부 공약을 마련.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각 자치구의 대표 공약으로 동구는 '문화예술 치유의 정원(H-파크)', 서구 '마르탕 탄약과 부지 국제문화·교육지구 및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남구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 북구 '국립 모빌리티 파크 조성',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 경제문화복합허브 조성' 등이다.

세부 공약을 보면 동구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글로벌 명품 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5대 공약이 제시됐다. 문화관광타운에는 무등산 역사문화관·ACC 문화예술관·양림사적근대역사문화관 등 3대 권역 관광타운 추진. 그리고 근대역사문화 공원 조성 등이다.

또 무등산 위생매립장 자원화 및 부지를 활용한 생태문화복합공간인 '문화예술 치유의 정원'과 조선평·AI사관학교 등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인제양성 체계 구축의 '글로벌 AI 창업·실용밸리 조성'도 추진된다.

여기에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 등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의 집적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도심집적형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동구 남부권 신도시(월남·내남·용산·선교지구등) 일원의 생태교육장, 수변 경관소, 별빛야영장 등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선교지구지 융복합 호수공원 개발'도 담겼다.

서구는 상무지구에 국가 AI혁신연구원

H-파크·도심융합특구 완성·다목적복합커뮤니티 건립

도시철도·송정역세권 경제문화허브 등 주민 숙원 반영

과 AI실용센터 설립 등 AI 중심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의 '도심융합특구 신속 완성' 등 6가지가 포함됐다.

현대식 건축물로 쾌적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양동시장 재도약 프로젝트'와 광안교에서 서창교로 이어지는 영산강변 복합문화공간인 '영산강 관광생태복합벨트 조성',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이 있다.

또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에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원 설립'과 '서창동 침수안심 도시전화 시범사업' 등도 담겼다.

남구는 문화·복지·평생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7가지 공약이 마련됐다.

백운광장~진월~호천역 구간 연장의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 광주·전남 지역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의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간 도로 개설', '청소년 E-Healing Universe 조성' 등이 있다.

여기에 테마거리와 디지털전통시장을 만드는 '무등~근분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촌 고싸움놀이 전수관 등 문화자원과 연계한 '전통·문화·예술(TCA) 밸리 조성' 등도 포함됐다.

북구는 초거대 AI컴퓨팅센터 및 글로벌 AX 실용밸리 조성의 'AI 산업 국가시범도시' 등 7가지가 마련됐다.

동·서광주 IC 인근 교통난 해소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관문도로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관련 공공교육기

관 유치의 '예술교육기관 이전·문화시

설 유치',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등이 있다.

또 공공의료 연구기관과 첨단의료단지 조성의 '본촌산단 이전 및 공공·첨단 의료 활성화', '미래모빌리티 안전인증 센터 건립',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속 추진 및 광주선 단계적 지하화' 등도 포함됐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중심 호남 광역 철도망 구축' 등 7가지가 마련됐다. '호남 광역철도망'에는 서해안선(새만금~광주 송정) 일반철도 단계적 추진과 달빛철도 연계 광주역~송정역 도심철도 지하화 등이 있다.

역세권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광주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확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통한 부지 개발 등이 포함된 '광주송정역세권 경제문화복합허브 조성'도 마련됐다.

또 '마한역사문화권 문화관광도시 조성', '광주김치촌 조성', '도심하천(풍영정천·장수천) 수질 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 '철단 자연거주마을 시범지구', '구 도심권 합류식 하수처리시설물 분류식 개선' 등이 있다.

이번 광주 5개 자치구 공약은 대선 기간 자치구의 건의를 받아 민주당 지역 공약에 반영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도시철도 2호선 3 단계 건설 등 지역 공약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남구도 적극 행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의회와 구의회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해왔던 전직 지방의원들이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선, 국민 후보 유일한 리더 이재명"

전직 지방의원 등 이재명 지지 선언 이어져

민주정책연구원과 더광전포럼 소속 회원 및 가족은 19일 공식 지지선언을 통해 "무너져가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리더는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21대 대선을 "국민후보 대극우 내란 후보의 대결"로 규정하며 "극심한

경제 침체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 뿐"이라는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의회와 자치구 의회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해왔던 전직 지방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영표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국가폭력

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광주의 정신을 기억한다"며 "광주시민에게 받은 소명을 다시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광주청년창업포럼은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가능성을 믿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사람"이라며 실행 가능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선언했다.

북구 골목상권 상인들도 "이재명 후보야말로 강한 실행력으로 민생을 회복시킬 유일한 준비된 리더라고 확신한다"고 지지 선언을 했다.

정승기 기자 sky@

'신재생에너지' 국가 거점 육성

전남 22개 시·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별 강점과 수요를 고려한 이번 공약은 농수산업 고도화부터 교통망 확충, 해양관광·에너지·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까지 전남 전역을 국가 성장 거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전남 선거대책위원회는 19일 전남 22개 시군의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순천시와 목포시는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공동 공약으로 담아, 전남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순천 공약에는 세계 유니버시티 유치와 함께 글로벌 K-디즈니 문화산업도시 조성,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이 포함됐다.

목포 공약은 RE100 국가 그린산단과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 거점 도시로 탈바꿈이 핵심이다.

세계 섬 엑스포와 트램·대불산단대교 건설도 공약에 포함됐다.

여수시에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과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국제공항 승격 추진을 통해 COP33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 준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양시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을 적극 지원하며, 광양항-울산산단 연결도로 개선과 KTX 광양역 정차 추진, 광양 새무서 신설,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도 병행한다.

나주시 공약에는 동북아 에너지산업

순천·목포 '통합의대'... 여수 '해양관광' 등 포함

나주 '공공기관 이전'... 지역강점 고려 전략구성

허브와 혁신도시 시연2를 통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담겨있고, 담양에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첨단산단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군(郡) 단위의 경우 담양은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담양 창평~대덕 4차로 확장, 광주 외곽순환도로 대덕~화순 국

가계획 반영, 장성 진원~담양 대전 국도 24호선 개량, 전차포사격장, 예비군훈련장 이전, 곡성은 섬진강 국가정원과 산림치유원, 블루베리 특화지역,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호남권 씨앗도서관 조성·건립을 약속했다.

또 구례는 권역 활성화와 국도 19호선(냉전(C~화계) 화·포장, 섬진강 관광벨트 순환관광 인프라, 지리산 생태박물관, 우리밀 허브타운, 양수발전소, 고흥은 광주~고흥 고속도로, 벌교~고흥~녹동간 우주선 철도, 우주 발사체 융복합 클러스터, 미래비행체 허브, 그린수소 기반 혁신

관, 폐광지역 신 성장축, 고인돌 유적지 국가정원 조성 등 4건이, 장흥은 노벨문학관 건립과 대덕읍 신리~장흥읍 순지, 안양면 기산~사촌 4차로 확장 등 모두 5건이 공약에 반영됐다.

강진은 제2 국가다산청렴연수원과 강

진만 국가정원,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해남은 솔라시도 AI(인공지능)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에너지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연장 등 각각 5건이 반영됐다. 영암은 대한외국인 행복도시 조성과 비독연수원 건립, 국립공원 엑스포벨리, 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 등 총 6건이 채택됐다.

무안은 AI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와 무안국제공항·KTX역세권 국가산단,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산단) 조성 등 6건, 함평은 미래모빌리티 특화산단과 그린바이오산업 혁신클러스터,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등 5건, 영광은 국가 차원 에너지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과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에너지산단 조성 등 5건이 공약으로 추진된다.

장성군은 고려시멘트 폐광 활용 관광테마파크, 고려시멘트 공장부지에 도농복합 컨벤션센터 건립, 백양사 관광지구 활성화, 완도는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와 호남고속철 연장, K해조류 기반 기후대응 플랫폼, 진도는 신 조도대교 신설과 호남고속철 연장, 공공 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신안은 신의~장신 연도교, 흑산관광 조기 착공, 하의~도초 연도교 등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중앙당이 지역맞춤형 공약으로 고심 끝에 결정된 현안 과제들"이라며 "대선을 계기로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 무등올림 산과 바다를 만나는 곳

24일(토) 광주국악방송 공동기획 개막공연 <꽃바람 따라> 토요일상설공연 문명자 무형유산 예능보유자<가아름 다섯마당>

25일(일) 연계행사 <제20회 빛고를 청소년 춤축제> 광주&일본 북해도 교류공연<산과 바다의 소리>

문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T.062-670-8511 http://www.gtcc.or.kr/

05. 24.토~25.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